

불은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람신화에 의하면 불을 다스리는 神이 지상의 인류들이 불을 모르고 지내는 것을 불쌍히 여겨 올림프스의 산상에서 영원히 타고있는 성화를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불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화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때부터 인간은

불의 위력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문명은 불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불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불로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어둠을 밝게 비추어준다는 사실, 캄캄한 밤중에 기습해 오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서서히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인간들은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 불을 이용하여 점차 문명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부터 불이 인류 문명에 이바지한 혜택은 실로 무한한 것이며 불의 이용가치는 날이 갈수록 우리 인류사회에서 더욱 더 높아만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불이 우리생활속에 있고 생활이 불로 인해서 영위되어 지는 것이라하지만 그 소중한



불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할때는 재앙을 몰고오는 필요악으로 변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어쩌면 불이 우리에게 주는 양면적인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불을 소중한 것 유익한 것으로만 알고 사용해 오다 1212년과 1666년 2차례의 대형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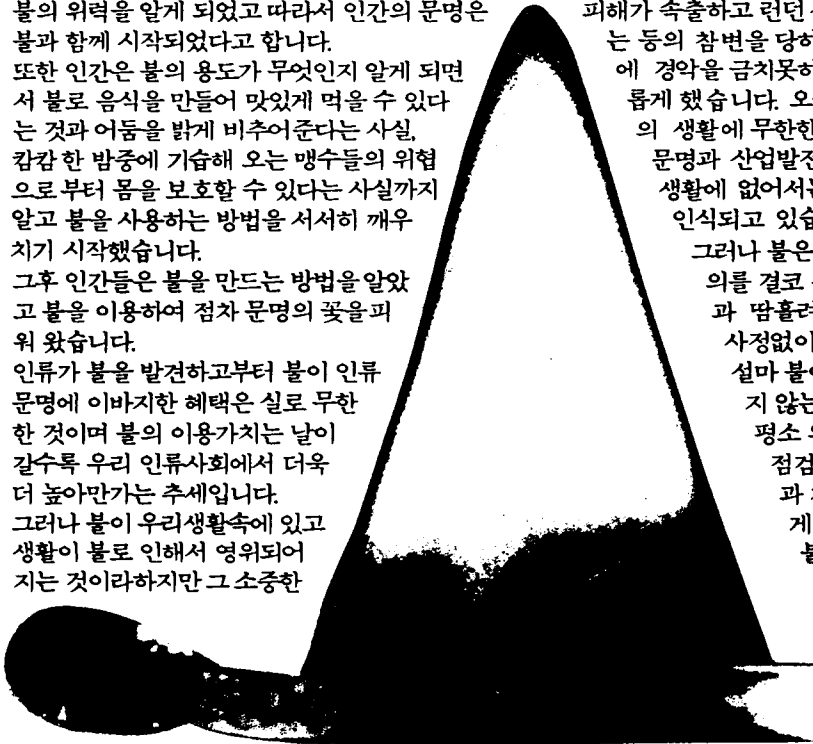
피해가 속출하고 런던 시가지의 4분의3이 전소하는 등의 참변을 당하자 전세계는 불의 위력앞에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불은 우리인간들의 생활에 무한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인류 문명과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면서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순간적인 방심이나 부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땀흘려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사정없이 앗아가기도 합니다.

실마 불이날까 하는 요행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평소 완벽한 방화시설에 철저한 점검과 주의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불, 불은 사전예방과 조심이 제일입니다.



화재예방과 관계보험업무의 범정부기관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 4 (783) 2121~2135, (780) 8111~8125